우암학원 창학 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1 SINCE 1952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팰리체
FELICE
www.승원건설그룹.com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124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9월 25일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인권·평등으로 빛난 화합의 문화체전

전남 전국장애인체전, 장애물 없는 경기장서 불편 없이 대회 치러
대회 기간 다양한 콘서트·공연 등 마련…모두가 어울리는 축제로

JEONNAM 2023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THE 43rd NATIONAL PARA GAMES

8일 폐막을 앞두고 있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장애인체육 발전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평등·문화 체전으로 치러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로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시각이다. 〈관련기사 9·18·20면〉

7일 전남도에 따르면 14년 만에 전남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전은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포츠 대축제의 장으로,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재미해외동포선수단 등 역대 최다 인원인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특히 이번 체전은 기획 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일상생활을 목표로 한 '특별한 체전'을 목표로, 대회 행사나 운영에서 전남 만의 특색과 브랜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힘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장애인들이 도움 없이 경기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BF인증(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을 갖춘 경기장 5곳(목포종합경기장, 목포반다비체육관, 여수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순천팔마국민체육센터, 광양성황스포츠센터)을 조성했다. 이들 시설은 출입로 단차를 최소화했고, 건물 내부 복도 폭도 여유 있게 구성하는 방향으로 신축·리모델링했다.

또 오래 전 조성돼 환경이 미흡한 목포·여수·순천 등 전남 5개시와 해남·영암·영광·장성 등 7개 군의 경기장 20곳, 이들 선수들이 이용하는 숙박업소 47곳, 333개 객실 입구, 349개 화장실에 700개 경사로를 설치했다.

휠체어 이용 선수(1357명), 전동휠체어 이동 선수(222명), 전동스쿠터 사용 선수(118명) 등 1697명의 선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가선수단 9578명과 경기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이뤄진 조치다.

BF인증이란 노약자,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건물을 지을 때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인증하는 제도다.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12개 시·군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대회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목포 등 6개 시·군에서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졌고, 해남·무안 등 2개 군에서도 밤 10시까지 운행이 가능하게 했다. 장흥 등 4개 군에서도 밤 10시까지 연장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버스(136대), 렌터카(306대)를 투입해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장(350면)을 확보하고 주차장과 셔틀버스 승강장에서 행사장까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도우미 서비스도 마련해 운영했다. 장애인들이 택시 잡기가 평소 '하늘의 별따기'인 지역이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뀐 것이다.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도 안전 개최와 응원 등에 뛰어들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가 열린 지난 8월부터 폐막까지 경기장뿐 아니라 주요 관광지에서 응원을 비롯해 경기 운영 지원, 경기장 안내소 운영, 환경 정화, 노약자와 장애인 이동 보조, 의료지원 활동, 관광 안내 등의 역할을 하며 전남의 이미지 향상에 힘을 보탰다.

대회 기간 다양한 콘서트와 축제 등을 마련해 '문화 체전'으로도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영화음악,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콘서트를 마련했고 휠체어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 강세웅과 이미경, 휠체어 성악가 이남현의 퍼포먼스를 비롯해 장애인·비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캐리비언의 해적', '사운드 오브 뮤직' 등 영화 OST도 울려 퍼져 체전의 의미를 환기했다. 제 9회 광주·전남 문화주간행사와 맞물려 열린 'ㅁㄷㅇ(모두의) 축제'도 이목을 끌었다. 타악그룹 얼쑤의 퓨전타악, 필그림의 크로스오버 공연, 광주 대표 스트릿댄스팀 빛고을 댄서스 등은 장애인과 시설 관계자를 격려하는 공연을 진행해 갈채를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7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육상필드 남자 포환던지기 F13 경기에 출전한 광주 김천천이 힘껏 포환을 던지고 있다. 김천천은 이 경기에서 최고기록 9.84m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해 지난 창던지기, 원반던지기에 이어 3관왕을 달성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빈대 '비상'… 대중교통·숙박시설 4주간 집중 방제

정부가 빈대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4주간 대중교통과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 집중 점검·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7일부터 도시철도 전동차에 대한 방역에 들어갔다.

정부는 7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 합동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숙박·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기숙사 등 학교 시설, 보육 시설, 교정시설, 대중교통 등 빈대가 발생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취약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빈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속히 방제 작업을 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능, 코로나19 확진자도 같은 시험장

점심은 별도 공간에서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다른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방역기준 완화에 따라 16일 수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시험실에서 응시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격리대상자를 위해 전년도에 설치했던 별도 시험장, 분리 시험실, 병원 시험장은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는다. 방역을 위해 점심시간에 사용했던 수험생용 간이 칸막이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확진자가 일반 수험생과 다른 공간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별도의 분리 공간이 마련된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마스크 착용과 함께 분리 공간에서의 식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을 신분증으로 쓸 수 있다.

본인의 시험장과 수험표는 오는 15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과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반드시 확인해 당일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수능 날 오전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져가면 수험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능 날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 안에 위치한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야 한다.

수능 날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져오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윤공희 대주교 백수연 ▶2면
KIA 정해영 "내년에는 끝까지 강렬하게" ▶19면
도시를 살린 ART 투어리즘 - 제주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